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명소연* 조진옥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교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질적 연구 방법인 근거이론(Strauss & Corbin, 1998)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정규학업 과정을 그만둔 지 3년 이상이 지난 학교밖 청소년 7명을 선정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코딩 결과 총 151개의 개념, 32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들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였다. 중심현상으로 '자포자기 심정의 학교중단'과 '피투된 삶', 인과적 조건으로 '학교내 계속되는 방향과 점층되는 부적응', 맥락적 조건은 '역기능 가족 속 상흔'과 '가난의 굴레', '애 어른의 힘겨운 성장기', '상실된 삶의 조절력' 으로 나타났다. 중재조건으로 '학교이탈 후 자각과 성찰의 시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인 학교밖 지원체계와의 조우', '새로운 관계 경험을 통한 치유'로 나타났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살아나는 분투의지', '학교밖 어린청년의 고군분투'로 결과는 '어린 청년의 성장과 도전'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미해결과제'로 나타났다. 둘째, 과정분석 결과는 '존재의 혼란기'로부터 시작하여 '고군분투저항기', '새로운 존재와의 조우기', '자각과 성찰을 위한 회복기', '삶의 재구성 및 성장기'로 5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핵심범주는 '학교밖 청소년의 성찰과 동행을 통한 삶의 적응'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교밖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을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차원까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살펴 본 것에 있다.

* 주요어: 학교밖 청소년, 학교 이탈, 삶의 도전과 성장, 근거이론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명소연,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0306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mmm88-75@hanmail.net

서론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하면 학교밖 청소년이란 해당 연령에 학교를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학업을 유예 또는 중단한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교 밖으로 나와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국 학교밖 청소년 수는 2010년 61,910명에서 2011년 76,589명으로 증가되었다가 2015년 51,906명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2008년 이후 누적된 인원을 추정하면 40만 명에 이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5). 이러한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교이탈 요인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지역 사회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박재은, 정슬기, 2011; 성윤숙, 2005). 더불어 이들이 학업 중단 후 겪게 되는 다양한 삶의 경로에 관한 연구로는 학업중단 후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윤철경 외, 2013; 정혜숙, 2011)와 이후 예방적 접근과 이들을 다시 정규학교로 복귀시킬 수 있는 연구(김성현, 이병환, 2012;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홍나미, 신문희, 박은혜, 박지현, 2013)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학업중단 이후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은 1~3개월까지는 학교에 가지 않고 미움껏 놀 수 있다는 생각에 해방감을 느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답답함, 무료함, 미래에 대한 불안이 동반된다(윤철경 외, 2013).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악화, 무의미한 생활의 지속과 더불어 학업중단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행동이 오히려 악화된다고 하였다(오혜영 외, 2011). 취업 전선에서도 학교밖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지 못한 채 저임금과 고된 노동의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희, 2014; 이주연, 정제영, 2015). 이는 장기적으로 진로 탐색의 기회 상실, 노동시장에서의 도태, 성인기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손실액이 11조 5,9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박주형, 정제영, 이주연, 2013).

이같은 사회적 영향과 관심으로 인해 최근 연구에서는 학교이탈에 대한 학교복귀 뿐 아니라, 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한 성장과 도전에 관한 연구들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고현, 차금안, 2016; 금지현, 김동심, 정수진, 2016; 황세화, 조성화, 곽정난, 김경전, 현명주, 2015). 학교밖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기도 하고(조규필, 정경은, 2016), 학교밖에서의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들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의 생활경험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보고되기도 하였다(김영희, 최보영, 2015; 이미원, 유현실, 2013). 실제로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 실천들도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주연, 정제영, 2015; 관계부처합동, 2015). 교육부에서는 학교내 대안학교 설립을 통해 잠재적 학교이탈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에 도입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2013; 이주연, 정제영, 2015). 또한 학교이탈이 높은 학교는 집중 대상학교로 선정하여 예산지원과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통해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경기도교육청, 2016). 여성가족부에서도 2015년부터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해 꿈드림센터를 설치하고 학교이탈 후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이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고용노동부와 연계를 통해서도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직업과 취업에 관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5).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교이탈 이후 도전과 성장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회적 선입견으로 벗어나 이탈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이주연, 정제영, 2015).

그러나 실제 학업중단 청소년의 도전과 성장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김영희, 허철수, 2012), 학교밖 청소년들이 세상밖에서 시도하는 다양한 도전과 성장에 관해 세밀하게 말해주는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학교밖 청소년들의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은 학교 안에서부터 학교 이탈 후까지 이어져 적응 및 위협 요인들을 연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장기간에 걸친 학교 불만족, 장기결석, 교사와의 갈등 등으로 학교 재학 시기에 어려움을 느꼈던 요인들이 학업중단 이후의 변화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변숙영, 이수경, 2011). 그러나 기존연구들에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삶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도전과 성장을 연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이탈 이후 삶의 경험은 어떠한가 라는 연구주제를 통해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교밖 청소년이 학교이탈 과정에서부터 이후 삶에서 경험하는 개인과 환경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심리적 경험을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질적연구 방법인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은 통계적인 절차나 계량화된 수단 즉, 양적연구 방법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현상의 전후 맥락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는 데 용이하다(Maxwell, 2005).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참여자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반응하는지 밝혀내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Schreiber & Stern, 2005). 특히 근거이론 연구 접근은 실제이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실제이론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며 실천가들에게 통찰력과 지침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5). 본 연구에서도 근거이론방법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의 도전과 성공에 관한 구체적 경험자료를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장실무자에게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상담 및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근거이론에서 참여자 선정은 이론에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 참여자는 정규학업 과정을 그만둔 지 3년 이상이 지난 학교밖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기도 G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지원사업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이다. 대상자 표집은 본 기관 상담자 추천 및 참여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를 타진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 기준은 첫째, 어떠한 요인으로도 학교를 이탈할 수 밖에 없었던 경험, 둘째, 지금 현재 정규교육과정 외에서 학업 및 사회 적응과정을 거치고 있는 대상자들을 기준으로 선별 하였다. 선정된 남녀 분포는 남 4명, 여 3명으로 총 7명이며, 현재 연령은 21~23세이며 중단 당시 연령은 17~18세로 표집되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배경정도

연번	성별	연령	중단 시기	학업중단 사유	가정환경특징	학업중단 이후 적응경로
1	남	23세	17세	경제적 이유	가정폭력, 경제적 빈곤	촬영기사로 프리랜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중
2	여	23세	17세	또래 관계	가정폭력, 경제적 빈곤	학교급식관련회사 근무중
3	여	22세	18세	복합적 스트레스	경제적 빈곤	사이버대학 재학중 4년제 대학 편입준비
4	남	22세	17세	학교 부적응	가정폭력, 경제적 빈곤	사이버대학 재학중 4년제 대학 편입준비
5	여	22세	18세	학업흥미 상실	가정폭력, 경제적 빈곤	4년제 대학 합격
6	남	21세	17세	학교폭력	경제적 빈곤 부 출소후 사망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7	남	21세	18세	교사와의 관계 학교규칙부적응	가정폭력, 빈곤 부의 알콜중독	상업고등학교로 복교 후 패션학원에서 진학준비

2.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

자료 수집은 2015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G시에 거주하는 7명의 학교중단 청소년들에게 심층면접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접방법으로 활용하되 연구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의 개방적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면접 당시 새로운 정보나 작은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으려 하였다. 면접은 2명의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고, 중립성, 자연스러움, 편안한 분위기, 진지함을 고려하면서 면담을 진행하되, 면담자료는 녹음 즉시 텍스트로 필사하여 원자료로 활용하였다. 절차는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표본추출, 메모와 도표, 지속적 비교 등의 분석과정을 거쳤다. 분석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자료를 분석한 후 연구의 객관화와 타당성을 위해 근거이론에 박식한 질적 연구 전문가 1명이 6차례에 걸친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다.

3. 연구자의 배경 및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의 책임연구자는 청소년상담사 1급을 보유하고 학교밖 청소년을 많이 접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한지 10년째 되는 책임자이다. 또한,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는 상담심리전문가로 상담현장과 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고, 두 연구자 모두 질적연구 과정을 1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요소를 충족하고자 직접 상담을 진행했던 사례는 제외하는 등 연구자의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자료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검증¹⁾ 방법을 사용하여 2명의 상담자와 2차례에 걸친 회의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3차례의 점검과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쳤다.

4. 연구 윤리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적이고 민감한 부분의 삶을 다루고 있어 연구 윤리 준수를 통한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 비밀보장, 인터뷰 내용 등을 전달하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타진하였다. 이후 참여를 원하는 대상을 통해 다시 한 번 권유나 회유가 아닌 자발적 참여의사인지 확인하였다. 둘째, 인터뷰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재현으로 인한 부담감과 불편감등 어떠한 이유로든 연구 참여자가 원할 경우 연구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전달하였다. 더불어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과 이후 후속 전화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민감하게 관찰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도탈락자나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셋째, 연구 참여자의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명과 지명 등은 익명 또는 숫자로 표기 하였다.

1) 삼각검증: 다수의 관점, 척도, 기법, 시간, 공간, 상황 등을 활용하거나 고려함으로써 질적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다(Miles & Huberman, 1994).

연구결과

1. 개방코딩(Open coding): 근거자료의 범주화

개방코딩의 결과인 범주화는 표 2와 같다. 이 자료는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에서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밝혀진 개념을 명명하고,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 좀 더 추상화하여 범주화시킴으로써, 총 151개의 개념, 32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가. 페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 축코딩

<표 2>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이탈과정과 삶의 적응에 대한 개념의 범주화: 개방코딩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과 접점을 찾기 힘든 어색한 관계 • 학교에서 어울릴 무리의 부재 • 또래 내 형성되는 서열화대열에 속하기 힘들었던 은파의 경험 	마음 둘 곳 없는 또래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때 시작된 비행 • 평범한 아이에서 노는 무리를 만나 동질감 형성 • 무리의 연속된 만남과 높아가는 비행의 수위 	무리와의 비행	학교내 계속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규율보다 내 멋과 무리의 위상이 우선인 • 학교 규율에 대한 거부감 • 지각이나 결석이 잦아진 	학교규율거부와 태만	방황과 점층되는 부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가 다가올수록 느껴지는 학업 스트레스 •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 수업시간 집중이 어려운 	학업흥미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께 미움받는 나 • 학교와 나는 맞지 않는 	부정적자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 돈벌이에 바쁘신 부모님 • 사업실패로 찾아온 가난과 불행 	반복되는 가난의 굴레	역기능 가족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가정의 불안정함 • 분노 및 적대감과 불안과 걱정이 공존하는 가정 • 가족문제로 지친 좌절감과 무력감 • 누구도 도울수 없는 가족문제 속 고립감 • 부끄러운 부모님 	밀착과 분열로 인한 부정적 가족역동	상혼과 가난의 굴레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 반복되는 술주정과 폭력 • 부모님의 잦은 부부싸움과 폭력 • 부 폭력의 피해자인 형과 모 • 평상시 괜찮다가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내 반복된 외상경험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의 돈벌이로 인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음 • 혼자인 게 습관이 된 어두운 어린시절 • 사업실패로 인한 빈번한 전학과 친구들과와의 거리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이 부재한 외로운 성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어른의 힘겨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의 이혼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 • 집안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근심 • 부모를 대신해 어린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찍 어른이 되어야 하는 중압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을 비롯해 모든게 싫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 • 반복되는 불안과 긴장으로 피하고 싶음 • 일상의 감정들이 얽혀져 모든게 싫어짐 • 관계에 거리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피적이고 단편적인 삶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란스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심삼일의 충동적이고 습관적인 패턴 • 주위의 조언을 듣지 않음 • 교사의 권위체계를 무시하고 행동함 • 감정이 가는대로 행동함 • 폭발직전의 감정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동적인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속 상실된 삶의조절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보다 집을 걱정하게 되는 급박한 상황 • 찾아지는 지각과 결석 • 규칙위반으로 인해 서서히 나빠지는 상황 • 숙고할 수 없는 스트레스 • 교사로부터의 짐승같은 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층되는 스트레스와 혼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퇴후 뭐라 생각해도 불안한 심정 • 막막한 심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 학교에서 계획된 과정에서 벗어난 막막함 • 학교규칙으로부터 해방된 한편의 자유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중단후 자유속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포자기 심정의 학교중단과 피투된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입고 다니는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과 거리감 • 우울한 심정으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짐 • 타인의 시선에 예민해짐 • 학교 다니는 또래들과 점점 멀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단후 자격지심으로 위축되는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과 낮이 바뀐 생활패턴 • 가정의 위급한 문제 해결후 누워만 있었던 몇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단후 무기력한 생활 패턴의연속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다시 일어섬 • 부에 대한 분노감으로 살아나는 승부욕 • 뒤통 해보자는 깡 •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 • 냉혹한 현실로 인한 두려움을 다짐으로 전환 • 아주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는 것에 대한 성공감 	<p>살아나는 삶의 의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과 낮이 바뀐 생활 패턴 회복을 위한 노력 • 모의 권유로 스케줄을 계획하는 하루일과 • 자신의 생활에 대한 자각과 실천 • 핸드폰 및 또래와 관계에서의 절제 • 자퇴 사건후 비행을 행하던 무리와 연락을 단절 	<p>새로운 시작을 위한 경계세우기</p>	살아나는 분투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작정 혼자 시작한 공부 • 무조건 밖에서 나가서 돌아다니기 • 중단후 아르바이트와 학원 등록 	<p>학교의빈공간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시도 • 가족에 보탬이 되고 싶어 자격증과 아르바이트를 시도 함 •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업전선에 뛰어듦 	<p>가족을 위해 발휘되는 책임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 알바에서 요구되는 체력에 모자란 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함 • 하루종일 서 있고 남들 머리를 감겨주는 것이 쉽지 않음 • 막내라는 이유로 정해진 일 외에 잡일들을 다 하라고 시킴 • 손님들의 비위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힘에 겨움 • 나 때문에 일하는 다른 사람들도 늦게 퇴근하면서 눈총을 받음 • 행주를 깨끗하게 빼는데 남들보다 시간이 많이 걸림 	<p>어린 노동자의 고단한 사회경험</p>	학교밖 어린청년의 고군분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면접 때마다 자퇴한 이유를 설명해 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음 •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졸업장이 없는 것에 대한 뼈저린 후회 •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p>사회 편견과 낙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스트레스에서 버티지 못한 자신에 대한 아쉬움 • 제대로 된 계획없이 학교중단한 것에 대한 후회 • 지난 과거의 걸멋으로 꾸민 자신을 내려놓음 • 비행으로 일삼던 관계에 대한 후회 	<p>과거에 대한 후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보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짐 • 부의 죽음으로 폐꿔야 하는 빈자리에서 온 위기의식 • 만만치 않은 사회생활 경험으로 인한 새로운 인생 다짐 • 충분히 놀았던 지난날에 대해 후회없이 앞만 보고 정진 • 입시를 위해서만 읽던 책에서 삶에 대한 교훈을 얻음 	<p>현실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각</p>	자각과 성찰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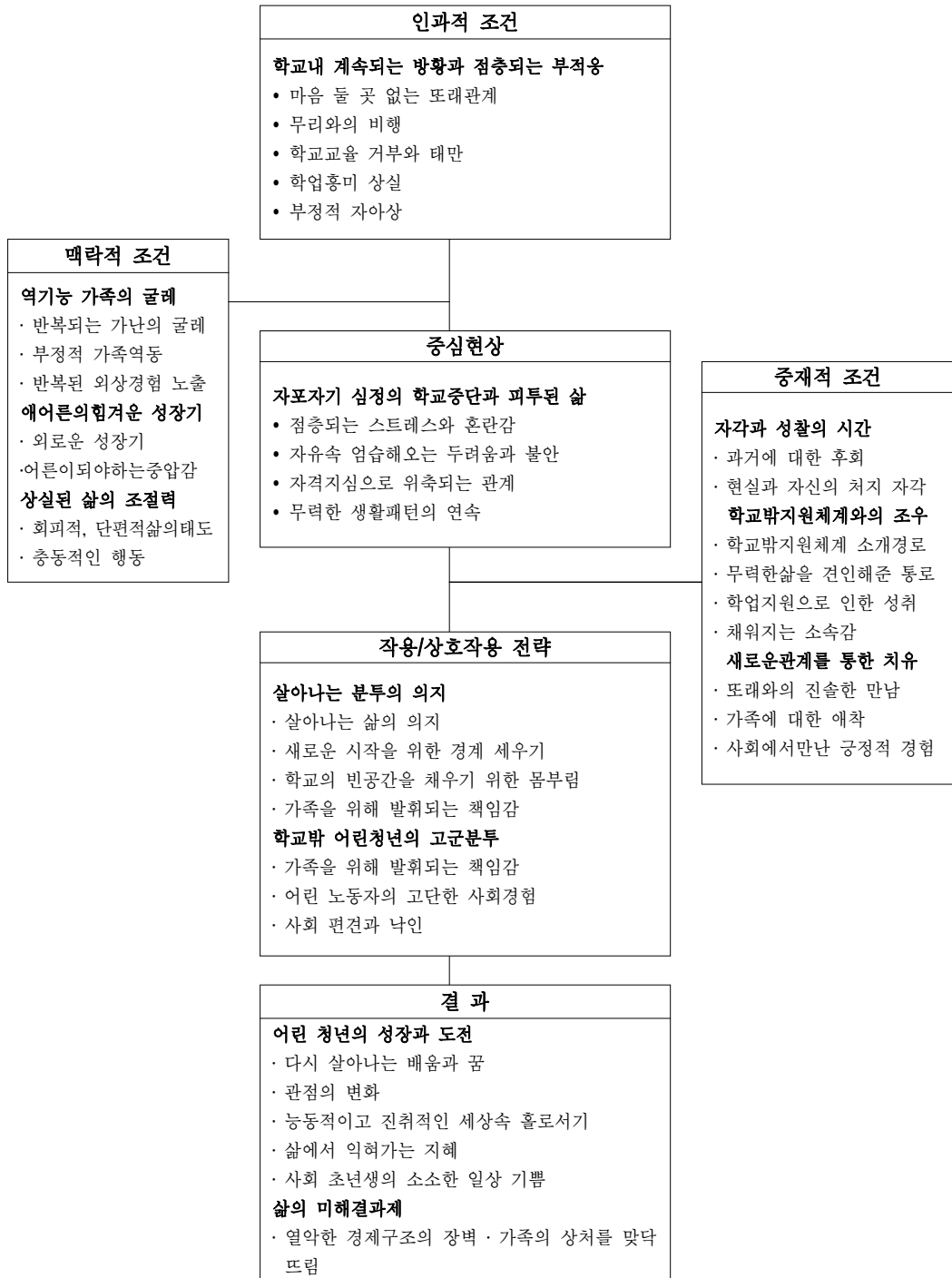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퇴전 학교 선생님을 통한 센터 안내 받음 • 외숙모를 통해 알게 된 상담센터 • 자퇴한 친구들을 통해 센터를 소개받음 	<p>학교밖 지원사업을 소개받은 경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연락이 귀찮은 마음을 돌리게 함 • 첫날 펑크낸 뒤 다시 상담을 잡아준 것이 기회가 됨 • 문제가 일어날 때 직접 나서서 동행해줌 • 밤낮이 바뀐 일상을 선생님과 함께 제자리돌리기 시도 • 진로탐색과 취업상담을 통해 찾은 자신만의 꿈 	<p>무력한 삶을 견인해 준 꿈의 통로</p>	<p>새로운 도약의 발판인 학교밖지원체계의 조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적기의 지원이 디딤돌이 됨. • 좌절 상태에서 제공받은 학업과 검정고시의 기회 • 학교에 버금가는 학교밖 프로그램과 지원 • 일대일 맞춤 지도를 통한 성공감 경험 	<p>지속적인 학업지원으로 일궈내는 공부와 성취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 일 없던 일상에서 매일 학교밖지원센터를 가게 됨 • 매일 해야 되는 일이 생김 • 나를 불러주는 곳이 생김 	<p>채워지는 소속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공통점으로 이해관계가 형성 •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 • 먼저 다가오는 관계를 통해 마음문을 열게됨 	<p>또래와의 진솔한 만남을 통한 소속감과 관계회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편입 • 가족에 보탬이 되고 싶어 자격증을 시도 • 힘들어도 웃으며 말하던 모가 힘이 되어줌 • 분노감을 가지던 부에 대해 이해하는 폭이 생김 • 부의 진심어린 격려가 검정고시 도전의 힘이 됨 • 동생이 힘이 되어줌 	<p>가족에 대한 애착</p>	<p>새로운 관계체험을 통한 치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멘토와 상담자의 만남을 통한 좋은 자극 •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는 멘토로 인한 도전 • 진로에 대한 기회를 준 원장선생님 • 학교밖에서 만난 관계가 삶의 모델링이 되어줌 • 좌절 상태에서도 의지가 되어준 상담자 	<p>사회에서 만난 어른들과의 긍정적인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소망 • 또래친구들과의 만남과 동아리활동의 즐거움 • 허세로만 그렸던 막연한 꿈이 체험을 통해 실질적인 진로를 위한 준비가 됨 • 학교중단을 자격증 및 학원으로 대체 • 학원과 아르바이트를 병행 	<p>다시 살아나는 배움과 꿈</p>	<p>어린 청년의 계속되는 성장과 도전</p>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양아치’라는 시각의 변화 • 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 타인의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됨 • 남탓하던 마음이 내 모습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생김 	관점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과 행동에서의 자발성과 능동성 • 경제적 이유로 결정한 대학에 대한 장기적 목표 설정 • 대학진학과 편입에서의 도전 • 상담에 의지하던 삶에서 이제 스스로 어려운 부분을 헤쳐나가 보고 싶음 • 부의 폭력적인 행동을 참지 않고 먼저 독립한 후 모도 독립함 • 가족 내 해결하기 버거운 문제를 지역사회 기관들로부터 도움 받음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세상속 홀로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맞게 관계를 조율해 나감 • 관계에서 먼저 다가가는 자발성 • 직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상사에게 이야기하며 고민 털어놓음 • 직장에서 꺼려하는 일을 먼저 알아서 하기도 함 • 익숙하지 않은 일을 늦게 남아서라도 해내려고 하는 모습에 상사로부터 인정받음 	삶에서 익혀가는 지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급날을 기다리는 기쁨 • 직장생활에서 업무를 마무리짓는 성취감 • 직장에서 누리는 관계의 즐거움 • 직장에서 직위와 내 자리가 정해진 소속감 • 여전히 가난해도 여행과 삶의 여유를 즐기는 시간을 가짐 	사회초년생의 소소한 일상 기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리 벌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경제구조 속에 허덕임 •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기가 버거움 • 낮은 학력으로 인해 취업기회가 제한됨 	열악한 경제구조의장벽	삶의 미해결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을 힘들게 했던 부가 여전히 미움 • 부모가 폭력적인 남자친구와의 만남 속에 가족 내 상처가 되살아남 • 이제 중학교 사춘기가 시작되는 동생에 대한 걱정 	가족의 상처를 맞닥뜨림	

패러다임이란 각 범주들 간의 연관성을 드러내어 조직화하는 도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 2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거자료에 의해 도출된 12개의 범주를 재조합하여 축코딩했다. 그 결과로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 간의 관련성 및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 1] 이탈과정과 적응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현상을 일으키거나 발전시키는 사건 또는 우연히 일어난 일들로서 현상의 원인이 되는 일련의 사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중심현상으로 나타난 '자포자기 심정의 학교중단과 피투된 삶'의 원인인 인과조건은 '학교내 계속되는 방황과 점층되는 부적응'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의 접점을 찾기 어렵다거나(참여자 4), 이와 반대로, 무리지는 비행으로 친구의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사고를 치기도 하였다(참여자 6,7). 학업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거나(참여자 4,5), 기초학습이 부족하고(참여자 2,3,5), 집안걱정으로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였다(참여자 1). 참여자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피드백은 '학교로부터의 부정적 자아상'에 영향을 주어 학교에서 부적응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들이었다.

“그 때 한창 반항하던 시기여서, 몰려다니다가 한 친구를 때리게 되었는데..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그 애가 (저와) 같은 학교에 못 있겠다 퇴학조치하거나 제발로 나가라고 해서 자퇴 권유 받고 나왔어요.” (참여자 6)

2)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인과적 조건으로 인해 무엇이 작용하고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일련의 범주들간의 관계 작용들에 대한 중심생각이나 사건들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0). 참여자들은 학교의 구속된 틀을 벗어나 학교밖 세상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택하였지만, 학교를 그만둔 직후에 불안한 심정이나 무기력한 생활(참여자 2,7), 낮과 밤이 바뀐 생활패턴(참여자 2,5,6,7)들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학교중단 후 교복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워지고, 이전에 학교에서 맺었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다(참여자 1,2,4,7). 또한,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참여자는 자신을 인생의 패배자라고 느끼기도 하였다(참여자 7).

“일단 미래가 막막했어요..(학교에 있으면) 자동으로 대학교까지 연결되는데 학교를 나오고 나니까 막막한 거예요. 학교 나오고 뭘해야 되지? 아무생각없이 가도 학교에서는 다 해 줘요” (참여자 4)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이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기보다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의 취약함으로 인해 오히려 애어른같은 모습으로 힘겨운 성장기를 보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가족 내에서 아무리 애써도 벗어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참여자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1,2,3,4,5,6,7), 학교, 가정, 또래에서의 복합적 스트레스로 인해 한 번 화가 나면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하기도 하였다(참여자 7). 초기에 말하지 못했던 스트레스는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다다르며 주위의 조언을 듣지 못하게 하였고(참여자 3), 참여자들은 학업 중단 직후에 분명한 계획 없이 구직활동을 하다가 작심삼일로 끝나기도 하였다(참여자 7).

“솔직히 말해서 (자퇴를) 안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부가 형과 모를 폭행하는 동안)저만 그렇게 할 수는(학교를 다닐 수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 다들 너무 지쳐있어서 이혼절차라든지 지원같은 거 받는 거 알아보는 거라든지, 학교를 다니면 그게 힘들잖아요.” (참여자 1)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이란 극복과 대처 전략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들로서 맥락적 조건 보다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것들이다(Strauss & Corbin, 1990). 참여자들이 학교이탈 이후 다시 안정감을 찾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자각과 성찰의 시간, 사회로 나아가기 전 발판이 되어주는 중간사회로써의 학교밖 지원체계, 새로운 관계체험을 통한 치유와 지속적 동행이 중재하였다. 참여자들은 학교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참여자 3)을 나타냈으며, 허세와 겉멋으로 치장한 모습을 벗어버리고(참여자 7), 비행으로 일삼던 관계를 반성하기도 하였다(참여자 6). 참여자들은 학벌사회의 냉혹한 현실 앞에 배움을 지속해야 되는 필요성을 절감하며 친척이나 친구, 교사를 통해 학교와 사회간 중간사회로써의 학교밖 지원체계를 소개받았다. 학교밖지원체계를 통해 모이게 된 참여자들은 학교밖 청소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어디에도 개방하지 못했던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참여자 1,2,3,4). 또한, 참여자들은 사회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주로 형성되었던 근로관계가 아닌 중간사회에서의 멘토-멘티관계를 통해 삶의 모델링을 발견하였고(참여자 1,3,6), 생계형 아르바이트에서 꿈을 찾기 위한 도전으로 변화되었다(참여자 7).

“저희가 친해졌던 이유가.. 친구를 만났다는 게 기뻐던 거 같아요. 동질감이 느껴지고, 학교밖을 나오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잖아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는 게 기뻐던 것 같아요”, “소속감. 확실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답인 거 같아요.” (참여자 3)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을 다루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써 극복과 대처 전략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참여자들은 학교중단 후 무기력한 생활의 반복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각오를 하게 되었다(참여자 1). 학교 이탈 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참여자들은 더 이상 청소년이라기보다는 어린 청년으

로 준비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보탬이 되고자 참여자들은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생계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고(참여자 2,5), 학교를 중단한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자격증을 준비하기도 하였다(참여자 2,4). 하지만, 참여자들이 어린 청년으로 직업전선에 뛰어들어 노동자로서의 삶은 숙련되지 않은 낯선 환경 속에서 체력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였고(참여자 4), 서비스업에서의 어려움에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참여자 3,5). 참여자들은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취업면접 때마다 ‘자퇴생’이라는 꼬리표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감과 학교중단과 졸업의 차이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등 사회 속에서 고군분투하였다.

“그 전까지는 막막했지만 지금 당장 보탬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열심히 해서 꼭 성공을 하고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소홀했던 학원생활을 정신 차리고서 자격증 같은 것도 따려고...”(참여자 7)

6)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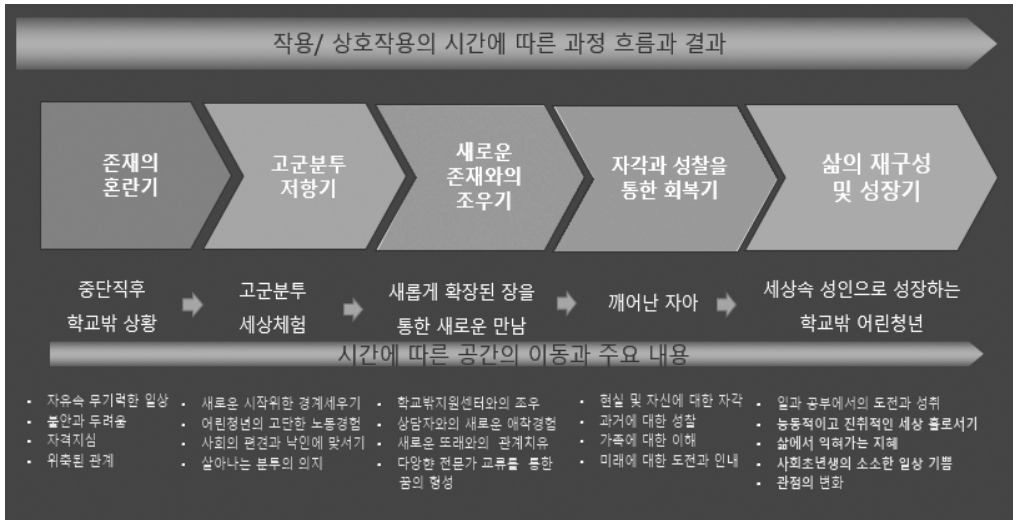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갖게 되는데, 이 결과들은 항상 예측가능하거나 의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결과들을 추적하는 점은 근거이론에서 매우 중요하다(Strauss & Corbin, 1990). 참여자들은 삶의 미해결과제가 남아있어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대처전략을 통하여 학교 밖에서도 어린청년의 성장과 도전은 계속되었다. 기초가 부족한 참여자들은 검정고시에 몇 번의 불합격 후에 재도전하기도 하였고(참여자 7), 학원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분주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참여자 6). 참여자들은 학교밖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또래와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 양아치라고 생각했던 관점이 변화되었고(참여자 4), 타인의 조언을 통해 도움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참여자들이 학교밖지원체계를 통해 만난 관계에서의 회복경험들은 소속감을 통해 의존적인 관계에서 주도성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참여자들은 대인관계에서 회피하던 수동적 방식에서 능동적 태도로 바뀔 뿐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거슬리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유연한 태도로 성장해 나가기도 하였다(참여자 3).

“제 돈으로 버는 것도 좋고, 월급날이 기다려지는 것도 좋고, 제 책상이 있다는 것도 좋고, 그게 처음에 진짜 좋았어요. 처음에 인수인계 받을 때는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 쳐다보고 그랬는데 제 책상을 갖게 되고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직급을 주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고.. 첫 휴가비를 받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자랑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진짜 좋았어요. 저 자신한테 뿌듯하고” (참여자 2)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 과정분석

과정분석이란 한 가지 중심현상과 관련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순차적인 진행이다(Strauss & Cobin, 1998).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시간흐름에 따른 작용 상호작용의 과정은 ‘존재의 혼란기’로부터 시작하여 ‘고군분투 저항기’, ‘새로운 존재와의 조우기’, ‘자각과 성찰을 통한 회복기’, ‘삶의 재구성 및 성장기’로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학교밖 청소년의 이탈과 이후 도전과 성장과정 단계

1) 존재의 혼란기

연구 참여자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학교이탈 직후 경험한 첫 번째 과정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경험은 자유로운 일상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는 무기력함, 밤낮이 뒤바뀌거나 제어되지 않는 생활패턴이었다. 이 때 참여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학교가 주는 답답함과 스트레스에 벗어난 자유로운 해방감을 느끼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 불안, 위축감이 보고되었다. 이는 학교에서의 제한된 규칙은 벗어났지만 또래관계의 위축, 정체성의 혼돈, 학교가 채워주던 과정의 대체 불가 등으로 인해, 혼란스런 감정을 경험하게 되어 '존재의 혼란기'로 명명하였다.

2) 고군분투 저항기

존재의 혼란기 이후 참여자들이 두 번째로 거치게 되는 과정은 학교 밖으로 나와 힘겨운 상황에 분투하고 의지를 다져가는 시기로 '고군 분투 저항기'로 명명하였다. 학교 밖을 나온 후에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구조 등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일

터로 나가야 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세상 속에서 받는 학교밖 청소년의 편견과 부정적 시선, 학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일자리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들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험과 현실 속에서도 참여자들은 무기력함을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으며, 가족 속에서의 분노를 분투의 에너지로 변화시키고 사회의 부당한 대우를 고군분투하며 저항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3) 새로운 존재와의 조우기

본 연구 참여자들이 세 번째로 거치게 되는 핵심적인 과정은 학교 밖 세상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존재와 이를 통해 새로운 만남의 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분석되었다. 이를 '새로운 존재와의 조우기'로 명명하였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학교밖지원체계를 소개 받아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학업 지속을 위한 학원 연계와 검정고시 준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멘토와의 연결 등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초기의 무력한 일상을 견인해주고 디딤돌이 되어준 상담자, 소속감을 공유하는 또래와의 조우가 일어났다. 이 시기는 학교 안에서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유대와 관계의 회복, 원가정에서 충족되지 못한 돌봄과 애착관계로 자신만의 꿈을 만들어가는 단계로 해석하였다.

4) 자각과 성찰을 통한 회복기

본 연구 참여자들이 네 번째로 거치게 되는 과정은 현실 및 자신에 대한 자각과 과거에 대한 성찰, 가족과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일어나며 새로운 도전과 인내가 회복되는 시기로 '자각과 성찰을 통한 회복기'로 명명하였다.

참여자들은 앞의 3단계를 거치면서 성취감, 관계에서의 친밀감과 신뢰로 심리적 안정이 회복되면서 과거를 성찰하는 힘,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가족과 자신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는 시기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무너진 조절력이 회복되고 삶에서 어려움을 인내하고 미래를 위해 일과 학업에 다시금 도전하게 하는 새로운 에너지로 작용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5) 삶의 재구성 및 성장기

본 연구 참여자들이 마지막으로 거치는 과정은 '삶의 재구성 및 성장기'로 명명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중단된 학업을 검정고시를 통해 다시금 채워갔으며, 일부 참여자들은 대학까지 도전하여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획일화된 입시구조 속의 대학진입이 아닌 사회 속에서 부딪친 경험과 필요를 통해 자발적인 진학이 이루어졌다. 또한, 학교밖 에서도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가꾸어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회에서 진취적인 꿈과 도전을 이루어갔다.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들의 성장은 계속되며 자신

의 인생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채워가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여 주었다.

2. 핵심범주: 학교밖 청소년의 성찰과 동행을 통한 삶의 적응

핵심범주는 자료에서 나타난 모든 범주들을 연결해주는 중핵적인 통합범주이며, 축 코딩의 결과로 나타난 모형을 바탕으로 보다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다른 모든 범주들의 중심현상을 축약적으로 나타낸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학교밖 청소년의 성찰과 동행을 통한 삶의 적응’이라고 축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뤄진 참여자들은 또래 관계나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교밖에 피투된 존재들이었다.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의 미성숙함으로 인한 가정의 불안정함은 참여자들이 학교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더해져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 숙고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참여자들의 익숙하지 않은 고된 노동과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삶은 막연하게 어떻게든 살아질 것이라고 여겼던 삶의 무게감을 맞닥뜨리며 밑바닥의 절망감을 더해갔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사회생활의 경험과 갑작스런 부의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의 위기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삶에 대한 절박함을 깨닫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절박함은 수동적이고 가만히 머물렀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참여자들에게 지나온 시간을 회고하며 그동안 회피했던 자신에 대한 자각을 통해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또한, 절박함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인정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이어지고,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다시 시도해 보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참여자들이 사회에 피투된 불안정감은 학교와 사회의 중간사회에서 만나는 또다른 관계 속에 안정감을 찾아갔다. 학교의 여러 무리 속에 가려진 존재로 살았던 참여자들은 학교밖지원 체계라는 중간사회에서 훈육 대신 기다림과 두드러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중간사회의 안정된 울타리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래와의 진솔한 만남은 관계를 회복하며 청소년의 발달과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중간사회에서 멘토로 만난 사람들의 직업세계를 경험하는 참여자들은 이전에 홀로 분투하며 포기할 수 밖에 없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동행관계의 독려 속에서 버텨내고 지속해나가게 되었다. 지지적인 또래, 멘토와 동행하는 삶은 관계의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유연성을 기르고, 회피했던 어려움들과 스트레스에 맞서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기 시작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지지적인 동행관계는 참여자들에게 역기능 가족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른 가족구성원들을 변화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고립되었던 가족문제는 지역사회 기관들의 도움으로 연결되어 참여자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기도 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지지체계를 다시 구축하여 서로 힘이 되기도 하였다. 월급받는 기쁨과 직장인으로서의 소소한 성공감은 무기력하던 참여자들의 삶에 활력이 되어 여전히 남아

있는 가족의 문제와 열악한 환경에 맞서서 포기하지 않고 적응하는 힘이 되었다. 참여자들에게 크게 변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삶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중간사회에서 함께 해 주는 또래와 멘토의 지지적인 동행인 것이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과정을 질적연구 방법인 근거이론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총 151개의 개념과 32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들이 도출되었고, 도출된 범주는 패러다임 분석, 과정분석, 핵심범주 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이탈과 학교밖에서의 삶의 도전과 성장과정에서 드러나는 연구결과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과정에서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차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계속되는 부적응과 부정적 자아상, 가족내 갈등과 가족 기능의 상실로 인한 힘겨운 성장기는 참여자들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혼란감을 가중시키며 삶에서의 조절력을 상실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삶의 조절력 상실은 학교안 밖에서 자포자기 하며 무력한 삶을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학업중단을 촉발하는 개인요인으로 잘못된 생활양식, 자기통제력 부족, 충동조절능력과 스트레스 대처 미숙, 미래에 대한 낮은 기대수준(강석영, 양은주, 이자영, 2009; 김민, 2001; 문은식, 2006; Hammond, Smink & Drew, 2007)이라는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이탈 후 청소년들이 느끼는 무력감, 무의미한 생활의 지속 등과 같은 학업중단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행동이 오히려 악화된다(성운숙, 2005; 오혜영 외, 2011)는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지속되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들이 다양한 경로로 학교밖 지원체계와의 조우, 또래와의 소속감 형성을 통해 과거와 자신을 성찰하고 현실에 대한 자각이 살아나며 삶에서의 조절력이 회복되는 변화가 분석되었다. 이는 이미원, 유현실(2013), 김영희, 최보영(2015)의 연구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밖 사회에서 새롭게 적응하고 학업을 계속하는 성장을 이야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학교밖에서도 도전과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2015년 5월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와 함께 전국적으로 20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그러나 예산부족과 정책적인 문제로 일부 관련 전문가들이 계약직으로 이루어져 지속적인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들의 도전과 성장 요인인 자각과 성찰이 일어나려면 상담자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지지와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인력채용의 기준상 전문적인 상담자를 채용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또한, 계약직의 특성상 계약만으로 인해 상담자가 변경되거나 중단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교밖 청소년이 감당해야 하며 초기비용이 낭비되는 사태까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백혜정, 송미경, 신정민(2015)연구에서 학교밖지원센터가 아직 초기단계로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과 일치한다.

둘째, 가정과 학교차원에서 드러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가족구조와 반복된 트라우마, 성장기의 외로움과 어려움들이 학교 안에서도 부적응과 비행으로 이어지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위협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주장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구조 및 의사소통 문제, 가족의 갈등과 기능 결함, 빈곤문제(김지현, 2001; 민하영, 1991; 이기학, 1997; 이회란, 2007; 조혜미, 2005)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학교밖을 나와서도 빈곤과 가족구조로 인해 취업전선으로 내몰려 사회에서 고군분투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밖 청소년의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가족의 지지와 자원이 주요변인(오혜영 외, 2011; 조규필 외, 2011)으로 밝혀진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잠재적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조기개입과 발굴을 위해서 개인의 특성과 가족의 특성, 학교에서의 특성을 연동적으로 파악하고, 각 체계별 개입과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 내 빈곤문제는 오랜기간동안 복지서비스 체계로 연결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통과 삶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일방적인 복지서비스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수치감과 무력감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더불어 학교밖 청소년 가족의 돌봄과 지지 기능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연결기관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잠재적 학교밖 청소년을 학업중단 숙려상담²⁾을 통해 다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자퇴결정시 학교밖 지원체제로 연결시키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잠재적 학교밖 청소년이 지니는 무기력감이나 현실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학교밖지원체제로 즉각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지연되게 만든다. 따라서, 학업중단숙려 상담이 잠재적 학교밖 청소년들의 초기 환경에서부터 연계되어 일련의 연속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밖 청소년들의 적응과정에 중요한 지역사회 요인으로는 중간사회로서의 학교밖 지원체계와, 체계 내의 다양한 전문가 및 또래와의 만남, 실질적인 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났

2) 학업중단숙려상담 :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고등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외부 전문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학업중단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문제아로 방치되어 파국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의 삶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박현진, 양혜원, 2013).

다. 학교와 또래가 사라진 빈 공간을 학교밖 지원체계의 프로그램과 지원으로 메우고, 학교밖에서의 낙인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상담자의 지지, 지원체계의 실질적인 물적 인적지원으로 안정되어 가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역기능 가정 및 환경과 자원이 열악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역량의 부족함으로 적절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김선아, 2010; 성윤숙, 2005)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다. 더불어 또래, 멘토와의 동행은 학교밖 청소년이 자각과 성찰이 일어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또래, 다양한 멘토와의 만남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 허효인, 김한별(2015)에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능동적, 주체적 참여를 격려하는 공간, 인격적 만남과 친구가 있는 공간에서 주도성과 자아정체감이 살아난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문화체험, 자활과 진로활동, 직업체험과 같은 프로그램과 복지제공도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심리 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체험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학교밖 지원체계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중간사회이자 사회 자본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취업전선에서도 부당한 근로조건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자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결과는 본 연구 참여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좌절을 극복하고 어린 청년으로 세상에서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교복귀를 위한 제언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복귀를 넘어 초기 성인으로 새로운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 초년생으로 월급의 기쁨을 누리는 도전과 성장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긍정적 개입과 더불어 보호요인이 있을 경우 학교 밖에서도 계속적이고 긍정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단순히 학업을 복귀하고 비행과 범죄를 방지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들이 학교 밖에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는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의 벽이 허물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 과정을 통합적으로 살펴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삶의 도전과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질적분석 결과를 통해 개인차원 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 차원까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참여자로 경기도 G시의 학교밖 청소년들 중 학교밖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으로 연구하여 전체 학교밖 청소년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연구로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및 유형의 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서 확인된 보호요인과 위협요인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석영, 양은주, 이자영 (2009).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고현, 차금안 (2016). 학교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변인이 성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5(1), 205-224.
- 관계부처합동 (2015). 학교밖 청소년 지원대책 발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5). 교육통계서비스.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2013).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방안 수립.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 경기도교육청 (2016). 2016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턴트 워크숍 자료집.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 금지현, 김동심, 정수진 (2016). 학교밖 청소년의 중학교 학력 취득 기회 제공: 대구 방송통신 중학교 설치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87-111.
- 김민 (2001).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발생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선아 (2010). 학업중단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성현, 이병환 (2012).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탐색. 교육문화연구, 18(2), 143-164.
- 김영희, 허철수 (2012). 중,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1991년-2011년. 상담학연구, 13(2), 1013-1028.
- 김영희, 최보영 (2015). 학업중단 청소년 심리사회 적응과정. 한국청소년연구, 26(2), 145-175.
- 김지현 (200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식 (2006). 청소년의 학교 중도탈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동기 변인들의 구조분석. 교육심리연구, 22(2), 405-423.
- 민하영 (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형, 정계영, 이주연 (2013).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법적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25(1), 129-150.
- 박재은, 정슬기 (2011). 청소년 학교중퇴의도 영향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2(2), 5-29.

- 박현진, 양혜원 (2013).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1), 257-278.
- 변숙영, 이수경 (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실태 및 지원방안. 교육문화연구, 17(2), 283-302.
- 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 학교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성윤숙 (2005). 학교 중도 탈락 청소년의 중퇴 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95-343.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5).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9(2), 125-154.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엄아람, 최은희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368.
- 여성가족부 (2016). 학교밖 청소년지원정책 안내.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3_05.jsp?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0&viewfnc5=1&viewfnc6=0에서 검색.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진로태도성숙과 심리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원, 유현실 (2013). 학교중단 청소년의 '나의 삶 찾기'과정: 천안시 거주 청소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1(1), 341-370.
- 이선희 (2014). 노동경험이 있는 학업중단청소년의 노동의 지지가 미래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8, 215-244.
- 이주연, 정제영 (2015). 학업중단 결정에 대한 학교밖 청소년의 인식 연구. 청소년학연구, 22(11), 239-267.
- 이희란 (2007).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진로요구, 직업가치, 진로성숙의 차이.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숙 (2011). 학업중단 여성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3, 65-68.
- 조규필, 박현진, 김래선, 김범구, 양대회, 이현진, 황수진 (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재적응 과정 연구. 중등교육연구, 59(4), 969-1000.
- 조규필, 정경은 (2016).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분석-두드림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3), 267-292.
- 조혜미 (2005). 비행여자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세화, 조성화, 광정남, 김경전, 현명주 (2015).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램 워크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 1-65.

허효인, 김한별 (2015). 학습공간의 조건: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습성 회복과정을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8(4), 77-102.

홍나미, 신문희, 박은혜, 박지현 (2013).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청소년복지연구, 15(1), 121-153.

Hammond, C. D., Smink J. S., & Drew, S. (2007). *Dropout risk factors and exemplary programs: A technical report*. National Dropout Prevention Center. Washington: Communities in Schools, Inc.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Vol. 75). Sage.

Maxwell, J. (2005).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Sage.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Vol. 15). Newbury Park, CA: Sage.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 Delhi, India: Sage Publication.

Schreiber, J., & Stern, P. (2005).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evidence-based practice in physical therapy. *Internet Journal of Allied Health Sciences and Practice*, 3(4), 9.

[원고접수일: 2016. 03. 23. / 수정원고접수일: 2016. 06. 02. / 게재결정일: 2016. 11. 04.]

A Qualitative Study About The After School Separation of Out-Of-School Youths and Their Challenge and Growth of Life : Focusing on The Youths Who Participant Out-Of-School Youths Supporting Project

So-Yeon Myung

Jin-Ok Cho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was explored an integrated look about the out-of-school youths from the school separation to the challenge and growth of life after their school separation and was analyzed by using a grounded theory approach (Strauss & Corbin, 1998). As study participants, a total of 7 out-of-school youths who had spent more than three year since dropping out of a regular high school were select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ategorization resulted in 151 concepts, 32 subcategories and 12 categories. Core phenomena were school dropout of feelings of self-abandonment and thrown life. The causal conditions were their continual wandering and increasing maladjustment in the school. The contextual conditions were scar in the dysfunctional family, bands of poverty, hard growth of grownup baby, and lost control power of life. As intervention conditions, time of awareness and Reflection, encountered support system out of school as to hold to make a new leap forward, and healing from new relationship experience were presented.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will of a struggle recovery, and fight unsupported struggle of young man out of school. The consequences were challenge and growth of youth and remaining unsolved problem of life. Second, The results of processing analysis consisted of 5 stages; confusion stage of existence, resistance stage of unsupported fight, encounter stage with 'new' being, recovery stage of awareness and reflection, reconstruction of life and stages of growth. Lastly, The core category was the adaptation of life through the reflection and accompany for out-of-school youth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specifically and precisely examined the challenge and growth in life and after seperation school out-of-school youths to experience personal, family, school, and community level.

Key word: out-of-school youths, school seperation, growth and challenge of life, ground theory